

“기억, 비완형보절의 사건/사실 해석, 그리고 다면어”에 대한 토론문

이의종

도쿄대학 한국조선문화연구전공

euijong@l.u-tokyo.ac.jp

이 연구는 한국어의 ‘-다는 것’ 완형보절과 ‘-ㄴ 것’ 비완형보절의 의미 해석에 대해 그 의미론적/인지적 바탕을 고찰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원칙적으로 완형보절은 ‘사실’의 의미에, 비완형보절은 ‘사건’의 의미에 대응된다는 연구의 전반적인 논지에 동의합니다. 이 토론에서는 연구 내용에 이견을 전격적으로 제기하기보다는, 연구 내용의 정교한 이해 및 적용 범위의 확장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합니다.

1.

완형보절은 사실 해석만 허용되지만, 비완형보절은 환유 기제에 따라 사건 해석과 사실 해석이 모두 허용됩니다. 본 연구의 논의에 따르면 완형보절의 의미와 ‘사실 해석 비완형보절’의 의미는 같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완형보절과 ‘사실 해석의 비완형보절’ 사이에 미세한 뉘앙스의 차이는 없는지요? 연구 과정에서 검토된 바가 있다면 설명을 베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몇몇 사유동사는 보절에 조사 ‘을/를’이 실현되었을 때와 ‘로/으로’가 실현되었을 때 의미와 보절 형식이 다릅니다.

(1) 가. 그는 나라가 해방된 것을 알았다/믿었다/생각했다.

나. 그는 나라가 해방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믿었다/생각했다.

(2) 가. 그는 나라가 해방된 것으로 알았다/믿었다/생각했다. (+여겼다/보았다...)

나. *그는 나라가 해방되었다는 것으로 알았다/믿었다/생각했다. (+여겼다/보았다...)

‘을/를’이 쓰인 (1가, 나)는 서실적(realis)이지만 ‘로/으로’가 쓰인 (2가, 나)는 서상적(irrealis)입니다. 그리고 완형보절과 비완형보절의 수용성에 차이가 있습니다. 저의 직관에 이 예문들 중 완형보절에 ‘로/으로’가 결합한 (2나)는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데요, 이 현상은 본 연구의 이론 내에서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3.

이 연구에 따르면 ‘사건’은 ‘사실’을 위시하여 ‘인과’, ‘시공간’, ‘지속시간’ 등의 다양한 국면(facet)을 갖고, 덕분에 비완형보절은 여러 국면 중 하나인 ‘사실’ 해석을 가질 수 있지만, ‘사실’은 ‘사건’으로서의 국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완형보절이 ‘사건’ 해석을 갖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완형보절과 비완형보절의 비교에 더하여, 구체 명사를 비교 대상으로 넣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1) 가. 전화를 떨어뜨렸다. (물리적 실체)
 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사건)
 다. 전화를 잊어버렸다. (사실)

- (2) 가. *전화가 온 것을 떨어뜨렸다. (물리적 실체)
 나. 전화가 온 것을 받지 않았다. (사건)
 다. 전화가 온 것을 잊어버렸다. (사실)

- (3) 가. *전화가 왔다는 것을 떨어뜨렸다. (물리적 실체)
 나. *전화가 왔다는 것을 받지 않았다. (사건)
 다. 전화가 왔다는 것을 잊어버렸다. (사실)

구체 명사 '전화', 비완형보절 '전화가 온 것', 완형보절 '전화가 왔다는 것'을 각각 문장 내에서 물리적 실체, 사건, 사실로 쓸 수 있는지 시험하는 예문을 만들어 본 것입니다. 위에서 보듯 명사어류가 표현할 수 있는 의미의 범위는 [구체 명사 > 비완형보절 > 완형보절]의 순으로 작아집니다.

이에 대해 비완형보절-완형보절에 적용되었던 논리를 확장하여 적용하면, '물리적 실체' 및 그 언어적 표상인 구체 명사는 그 하나하나가 '사건'보다 더 다양하고 풍성한 국면을 가지고, 그 국면의 총화로서의 게슈탈트를 가장 크게 형성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리적 실체에서 '사건', '사실' 순으로 갈수록 해당 언어 표현이 [지시할 수 있는 범위(=facet)가 좁아지고 한정된다]고 이해할 수 있을 듯합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각종 언어 표현의 환유 가능성을 위계화, 서열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연구의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